“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7호 HYUNBULNEWS.COM 2025년 9월 17일(음력 7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밝고 밝고, 희고 또 희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특별전 ‘성파선예전(性坡禪藝展)-명명백백(明明白白)’ 이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파 스님이 9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전시를 관람했다. ‘성파선예전’ 은 11월 2일까지 계속된다. 〈관련 기사 9면〉
청주=여수령 기자 · 사진=정현선 작가

조계종 원로의원에 원산 대종사 추천

중앙종회 제235회 회의서
종법 개정안 등 안건 처리



조계종 원로의원에 통도사 원산 도명 대종사〈사진〉가 추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9월 10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개원한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원로회의는 원로회의법에 의해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원로회의 의원 자격은 승납 45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 원로 비구다.

원산 스님은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사미계를, 196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주지와 조계종 교육원장, 제8교구본사 직지사·제15교구본사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했다. 2021년 10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원로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 등 8건의 종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다만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과 호계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는 종헌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긴밀한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다수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에 이월됐다.

관심을 모았던 ‘사찰법 개정안’과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도 이월됐다. 또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종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사항을 종법으로 규정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10일 오전 개원한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12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하루 만에 폐회했다.

〈관련 기사 2면〉 김내영 기자

50돌 진흥원 “세상을 위한 불교” 다짐

9월 8일 다보원서 50주년 기념법회

故장경호 거사 50주기 추모
불교진흥 · 홍포 의지 다져
‘불교진흥원 50년사’ 봉정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오늘의 한국불교는 자각과 반성으로 일대 개혁의 시점에 다다랐습니다.〈중략〉 이렇게 하여 불교가 바로 설 때 국민정신이 올바로 설 것이며 불광이 온누리에 비칠 때 이 땅, 이 민족이 국태민안 속에 번영·발전하고 나아가 전 세계는 자유와 평화가 이룩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 장경호 거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中

동국제강 창업자이자 불교 대중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으로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한 고 장경호 거사 50주기를 맞아 불교의 대중화, 의식의 현대화, 교리의 생활화라는 설립 이념을 되새기고, ‘세상을 위한 불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추모 법회가 마련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9월 8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대원 장경호 거사 50주기 추모 및 대한불교진흥원 5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BBS 불교방송 상임이사 현민 스님,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서진영 BBS불교방송 사장, 진흥원·불교방송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은 “장경호 거사는 평생을 불교 중흥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며 “장 거사 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불교방송과 수많은 포교 기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진흥원은 그간 장 거사님의 유지를 이어 부처님 말씀을 현대적으로 기록하고, 내실화를 다지며, 시대



구상진 진흥원 이사가 〈진흥원 50년사〉를 봉정하고 있다.

변화에 맞춰 불법 홍포에 힘써왔다”며 “이번 법회가 진흥원의 반세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추모사에서 할아버지인 장경호 거사를 ‘위대한 삶의 길을 보여준 선각자’라고 평가했다. 장 회장은 “쌀 한 톨, 배추 한 포기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가 1975년 모든 재산을 사회와 불교를 위해 환원한 실천행은 그의 훌륭함을 잘 보여 준다”며 “무엇보다 사람을 최고로 여기며 경영해 임했던 그 뜻은 급변하고 개인화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정신을 금과옥조로 여겨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장경호 거사가 이룬 불교 대중화와 진흥원의 다양한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그의 삶이 한국불교 발전에 끼친 영향력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저도 총무원장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장경호 거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 깊이와 선구자적 실천에 감명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앞서 구상진 진흥원 이사는 장경호 거사의 일생과 진흥원의 발전 과정을 정리한 〈대한불교진흥원 50년사〉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대원 장경호 거사는 1975년 일평생 근검절약해 모은 정재 30여 억원을 ‘불교 중흥에 써달라’는 서한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에게 헌납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하고 불교방송 탄생의 기초가 마련됐다. 한국불교 중흥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는 1975년 9월 9일 타계했다.

〈관련 기사 4면〉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쉐본우 사원학교에 5호 완공

국제구호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이 다섯 번째 결실을 맺었다. 양 기관은 최근 미얀마 양곤 사우스다곤 타운쉽 지역에 위치한 쉐본우 사원학교에 정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에 소개된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기사를 접한 서산 금강사가 600만원을 후원하면서 추진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이번 정수시설로 쉐본우 사원학교 재학생 400여 명뿐 아니라 교사와 스님들 아울러 인근 지역 4000여 주민들도 일정 부분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 전체의 위생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련기사 3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후원문의 : 02-725-4277



여기는 화엄만다라 · 12면
취임 2년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